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류시원, NHK 드라마 출연
한국 연예인으로 처음

‘한류스타’ 류시원이 한국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NHK TV 아침드라마에 출연한다.

일본 언론은 ‘류시원이 내년 4월2일부터 방송되는 NHK 아침 드라마 ‘점점 맑음’에 한국 연예인 역으로 출연한다’고 보도했다.

드라마 ‘점점 맑음’은 매주 월~토曜일 오전 8시15분 방송될 예정.

도시 출신의 여주인공(히가 마나미)이 이와테현의 전통 있는 여관에서 일하며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으로 류시원은 여관에 투숙한 한국의 유명 연예인 역을 맡아 드라마 초반부 1주일 동안 특별 출연한다.

류시원은 이 드라마를 위해 지난달 촬영지인 일본 이와테현에서 촬영을 마쳤다.



‘건방진 여자들’ 뛴다

“고라지 하고는...” “맘에 안 들어.” “다쳐.”

다양한 유행어를 양산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MBC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주인공 ‘안나 조’ 역할을 맡은 한예슬(24)의 대사다. 건방짐을 넘어서 모방자한 캐릭터 ‘안나 조’가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환상의 커플’ 애청자라는 김하나(25·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기존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싸가지 없는’ 캐릭터가 신선하게 느껴진다”며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신하고 단아한 여자들이 사랑받았던 방송사에 ‘건방진’ 여성들이 뛰어 있다.

지고지순한 사람을 그렸던 예전과 달리 빨랄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젊은 세대가 주 타깃층이 되면서 생긴 변화다.

특히 남성, 여성 차별이 사라진 요즘 신세대들에게는 암전하고, 순종적인 여성은 오히려 내용을 떠는 것으로 보여 비호감이 되기 심상이다. 현영, 이효리 등 성우들이 강하고 텔털한 이미지의 여자 연예인이 사랑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KBS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의’ 미월(최정원 분)도 건방진 여자의 전형이다. 명품을 좋아하고, 멋내는 것을 좋아해 ‘퀸장녀’의 전형이라는 비난까지 받아야 했던 미월이는 결혼 후에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명절을 앞두고 남편에게 “난 명절엔 각자 자기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기분 좋은 명절날, 남의 집 가서 눈치 보며 기분 잡쳐야겠어?”라는 폭탄 대사를 날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사실, 미월이의 말이 틀린 것은 없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과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적인 가치들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미월이가 꽤 쇄하다”는 의견으로 나뉘며 설왕설래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3절로 일컬어지는 ‘황

진이’도 드라마에서 고전적인 여성상이 아닌 당당한 여성상을 표현한다. KBS 드라마 ‘황진이’의 ‘진이’(하지원 분)는 첫사랑 은호를 잊은 상처를 겪은 후 카리스마 넘치는 기생으로 변신한다.

뛰어난 글솜씨와 음악으로 외국 사신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하면, 기녀의 신분으로 양반인 벽계수에게 “신분이 천하마다 하늘 아래 듣는 귀도 천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권세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는 법이지요”라며 따끔한 일침을 놓기도 한다.

여자 연예인들에게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일종의 변신의 기회가 되기도 한

다. 그동안 청순하고 미련스럽게 착한 캐릭터를 맡았던 성유리는 KBS 드라마 ‘눈의 여왕’에서 차갑고 건방진 부잣집 딸 ‘보라’로 변신했다. 소핑을 하다가 자기 밤에 들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고, 가정부의 딸이 자신의 명품 옷을 걸치자 가위로 옷을 잘라갈까 잘라버린다.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이보영은 KBS 드라마 ‘개임의 여왕’에서 무서운 정도로 냉정한 여자 강은설로 변신한다. 은설이 복수를 위해 원수의 딸인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 이진진(주진모)의 음모를 눈치챈 뒤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복수의 게임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로 18일 첫 방송에서 시청률 11.5%를 기록하며 상쾌한 출발을 했다.

전남대 사회학과 장미경 교수는 “드라마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 캐릭터의 성격이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주체적이고 자기 주장이 당당한 여성의 주목받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3절로 일컬어지는 ‘황

한예슬·성유리·이보영 등

드라마 당찬 이미지 인기

다. 그동안 청순하고 미련스럽게 착한 캐릭터를 맡았던 성유리는 KBS 드라마 ‘눈의 여왕’에서 차갑고 건방진 부잣집 딸 ‘보라’로 변신했다. 소핑을 하다가 자기 밤에 들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고, 가정부의 딸이 자신의 명품 옷을 걸치자 가위로 옷을 잘라갈까 잘라버린다.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이보영은 KBS 드라마 ‘개임의 여왕’에서 무서운 정도로 냉정한 여자 강은설로 변신한다. 은설이 복수를 위해 원수의 딸인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 이진진(주진모)의 음모를 눈치챈 뒤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복수의 게임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로 18일 첫 방송에서 시청률 11.5%를 기록하며 상쾌한 출발을 했다.

전남대 사회학과 장미경 교수는 “드라마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 캐릭터의 성격이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주체적이고 자기 주장이 당당한 여성의 주목받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3절로 일컬어지는 ‘황

진이’도 드라마에서 고전적인 여성상이 아닌 당당한 여성상을 표현한다. KBS 드라마 ‘황진이’의 ‘진이’(하지원 분)는 첫사랑 은호를 잊은 상처를 겪은 후 카리스마 넘치는 기생으로 변신한다.

뛰어난 글솜씨와 음악으로 외국 사신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하면, 기녀의 신분으로 양반인 벽계수에게 “신분이 천하마다 하늘 아래 듣는 귀도 천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권세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는 법이지요”라며 따끔한 일침을 놓기도 한다.

여자 연예인들에게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일종의 변신의 기회가 되기도 한

다. 그동안 청순하고 미련스럽게 착한 캐릭터를 맡았던 성유리는 KBS 드라마 ‘눈의 여왕’에서 차갑고 건방진 부잣집 딸 ‘보라’로 변신했다. 소핑을 하다가 자기 밤에 들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고, 가정부의 딸이 자신의 명품 옷을 걸치자 가위로 옷을 잘라갈까 잘라버린다.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이보영은 KBS 드라마 ‘개임의 여왕’에서 무서운 정도로 냉정한 여자 강은설로 변신한다. 은설이 복수를 위해 원수의 딸인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 이진진(주진모)의 음모를 눈치챈 뒤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복수의 게임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로 18일 첫 방송에서 시청률 11.5%를 기록하며 상쾌한 출발을 했다.

전남대 사회학과 장미경 교수는 “드라마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 캐릭터의 성격이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주체적이고 자기 주장이 당당한 여성의 주목받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시사 풍자 코미디’ 전성시대



방송기에 시사풍자 개그가 유행하고 있다.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형님뉴스’ 코너.

‘3김’ ‘대변인’ ‘형님뉴스’ 등 유행

“무슨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짐값은 더욱 오르고 서민은 죽을 맛이요, 백성이 무슨 노리개요, 똑바로 좀 하시오.”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이 아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대사 중 일부이다.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시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MBC ‘개그야’의 ‘미안본색’ 코너는 지난 13일과 20일 방송에서 연이어 부동산 문제를 소재로 삼았다. 이 코너는 조선의 기녀로 분한 김세아와 이경애가 개인기 대결을 펼친다. 때로는 ‘나랏님’에게 쓴소리를 하는 형식으로 웃음을 전한다. 나아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등 이른바 ‘3김’,

이희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의 최근 심상치 않은 행보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직설적으로 풍자한다.

KBS도 최근 풍자 코미디를 대폭 강화했다. ‘폭소클럽’은 ‘폭소클럽 2’로 새롭게 단장해 25일부터 KBS 1TV에서 첫 방송한다. 사회에서 이슈가 된 사건과 연관된 단체나 사람들을 대변하는 형식의 시사코미디 ‘대변인’ 등이 대표적인 풍자 코너.

KBS 2TV가 22일 신설한 ‘웃음 충전소’의 ‘대안제국’도 정치 풍자 부대이다. 이개인이 황제로 등장하는 이 코너의 첫회는 부동산 문제를 소재로 삼았다. 김구라가 법무대신, 장동민이 문화관광부 대신역을 맡아 좌충우돌하는 회의를 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고충을 간접적으로 대변한다.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형님뉴스’도 풍자 코드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조직폭력배들이 이 뉴스를 진행하는 형식의 이 코너는 “~가 ~다워야 ~지”라는 유행어와 함께 풍자를 시도한다.

서울본원 1차 학종합격생 156명

KPA 회원 2006년 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이
노량진의 학종 학원을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① 개월화제 / 1년 학제제

② 2개월 종합반·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가능

③ 1개월 무료 등록금 대상 (회원제)

④ 정복서실, 고사원 할인 혜택

⑤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 특강 수강

⑥ 매월 실전모의고사 실시 (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원	형 법	형사소송법
김재규 교수	조태업 교수	윤경근 교수
수사	영어	영어
오수평 교수	오순아 교수	김지선 교수

062) 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쉬운 것!

교정공무원

사회복지

소방공무원

보통관찰직

세무공무원

개강

12월 1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www.kjkimyoung.co.kr

대학편입 마무리과정(6주)

개설과목: 영어/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1차개강: 12월 1일, 2차개강: 12월 4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1월 예정

김영대학편입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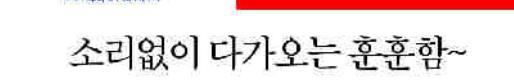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 1069

(062)371-7095, 011-601-7701

AIRREX 플레이트 히터

소리없이 다가오는 훈훈함~

전기히터의 명품 플레이트히터



• AH-71PS(3~5평)



• AH-730(6~7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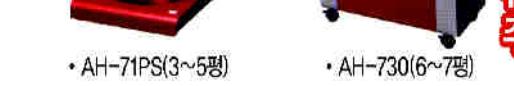
• AH-790(22~24평)



• AH-760(12~14평)



• AH-600(30~40평)



• AH-800(45~55평)